

이소양 연구원

요약

스위스리에 따르면 ASEAN-5 생명보험시장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큼. ASEAN-5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민족과 문화 상황이, 태국은 인구구조 변화와 금리 동향이, 베트남은 방카슈랑스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각 생명보험시장의 주요 이슈임. 한편,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인도네시아, 태국, 베트남을 중점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, 이들의 진출 방식은 대체로 합작투자 방식임

- 스위스리(Swiss Re)에 따르면 아세안 5개 신흥국(이하 'ASEAN-5') 생명보험시장은 글로벌 보험시장 가운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경제 발전에 따라 성장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됨¹⁾
 - ASEAN-5는 말레이시아, 태국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 등 아세안 5개 신흥국을 의미하며, 최근 10년간(2012~2022년) CAGR은 4.6%로 중국(9.9%), 인도(6.4%)에 이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
 - ASEAN-5 생명보험시장이 글로벌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.3%에서 2022년에는 1.9%로 상승함
 - 스위스리에 따르면 2022년 ASEAN-5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약 539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약 60%에 해당하며, 88개 조사 대상 국가·지역에서 말레이시아가(147억 달러) 27위, 태국(138억 달러)이 28위, 인도네시아(118억 달러)가 29위, 베트남(83억 달러)이 32위, 필리핀(54억 달러)이 37위로 대체로 중위에 있음
 - ASEAN-5 생명보험시장은 경제 발전에 따른 중산층 규모 확대 및 자산 형성 요구 증가 등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
 - 아세안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연평균 5%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, ASEAN-5는 전체 아세안 인구의 87.3%, GDP의 83.4%를 차지하면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함
- ASEAN-5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족과 문화 상황이, 태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금리 동향이, 베트남에서는 방카슈랑스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각 생명보험시장의 주요 이슈임²⁾
 -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은 이슬람보험인 '타카ful' 시장과 '비타카ful' 시장으로 나뉘며, 2021년 보험료·납부금에서 '비타카ful' 보험이 약 90%를 차지하고, 이슬람보험이 약 10%를 차지하고 있음
 - '비타카ful' 보험에서는 투자 성과와 연계된 변액보험이 60%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, 양로보험이 19%, 정기보험이 8%를 각각 차지하며, 이슬람보험의 경우 사망과 의료 보장을 제공한 '패밀리 타카ful'이 대부분을 차지함

1) Swiss Re(2023. 10), "World Insurance"

2) フコク生命(2023. 11), "ASEAN諸国の生命保険事情"; ニッセイ基礎研究所(2022. 5), "2020年のインドネシア生命保険市場の概況"

- 이슬람보험이 '비타카풀' 보험에 비해 시장이 아직 크지 않으나,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슬람보험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
 - 태국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상해보험과 종신보험이 약 60%를 차지하고 있지만, 양로보험, 변액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, 보험설계사 및 방카슈랑스 채널이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를 잡고 있음
 - 2022년에는 상해보험(36%), 종신보험(22%)은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변액보험이 18%, 양로보험이 12%, 정기보험이 9%를 각각 차지함
 - 태국에서는 중산층 규모의 확대, 가구 고령화와 가구 규모의 축소, 금리의 하락 추세 등 요인으로 변액보험과 양로보험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, 상해보험과 종신보험 판매가 줄어들고 있음
 - 베트남 생명보험시장은 주로 변액보험(신계약 보험료 기준 약 90%)으로 판매되고 있으며, 2022년에 방카슈랑스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드러나 시장 위축 요인이 되고 있음
 - 방카슈랑스 판매는 2020년에 베트남 주식시장 부진으로 인한 변액보험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상품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불만이 급증함
 - 베트남 재무부가 2023년 초부터 방카슈랑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4개사의 위반 행위를 처벌하였으며, 방카슈랑스에 대한 베트남 재무부 조사의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 신계약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% 감소함
- 한편,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아시아 신흥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, ASEAN-5 가운데 인도네시아, 태국, 베트남을 중점 시장으로 진출함
-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2000년대부터 과거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출하던 해외진출 전략을 수정하고 보험산업의 지역적 리스크 분산과 장기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을 강화하기 시작함
 - 아시아 신흥시장처럼 단기적으로 이익 기여도가 낮고 재투자가 요구되는 장기적 관점의 잠재 성장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 이익 기여도가 높은 미국, 유럽 등의 안정시장에 대한 진출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
 - 일본 생명보험시장 2022년 기준 상위 4사는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Prudential, AXA, Allianz 등 글로벌 보험회사보다 늦지만, 지분투자 등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
 - 생명보험시장 상위 4사는 각각 다이이치생명(15%), 닛폰생명(13%), 메이지야스다생명(7%), 스미토모생명(6%)임
 -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의 ASEAN-5 시장 진출 순서는 태국(1997년), 베트남(2007년), 인도네시아(2010년)이며, 진출이 많은 시장은 인도네시아(4개 사), 태국(3개 사), 베트남(2개 사)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
- 일본의 다이이치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회사들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현지 대기업이나 은행 등이 소유한 보험회사 지분에 출자하거나 이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합작투자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음(표 1) 참조
- 일본 다이이치생명은 베트남에서 현지 회사인 바오민 CMG사를 인수하여 직접 경영을 통해 시장점유율 2위 보험회사로 성장시켰음
 - 다이이치생명은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해 직접적인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현지인 CEO 등과의 강력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현지 경영진의 자율 경영을 촉진하는 등 인적자원의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
 - 닛폰생명, 메이지야스다생명, 스미토모생명은 인도네시아, 태국, 베트남에서 합작투자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으며, 합작 현지 파트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현지화를 단기간에 추진하였음

- 닛폰생명, 메이지야스다생명, 스미토모생명은 각각 태국, 인도네시아, 베트남에서 적은 지분으로 출자를 시작한 이후 규제 완화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합작회사의 지분율을 높이고 있음

〈표 1〉 ASEAN-5 생명보험 시장동향과 일본 보험회사의 진출 현황

ASEAN-5	일본 보험회사의 진출 현황
시장 지표	진출 대상 시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2년 기준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: 말레이시아 147억 달러, 베트남 83억 달러, 필리핀 54억 달러, 태국 138억 달러, 인도네시아 118억 달러 • 2022년 기준 생명보험시장 순위: 말레이시아 27위, 베트남 32위, 필리핀 37위, 태국 37위, 인도네시아 29위 • 2012~2022년 생명보험시장 CAGR: 말레이시아 4.5%, 베트남 25.1%, 필리핀 9.0%, 태국 2.5%, 인도네시아 0.8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이이치생명: 2013년 인도네시아 PT Panin Internasional 40% 지분 출자; 2008년 태국 Ocean Life 25% 지분 출자; 2007년 베트남 바오민 CMG사 전액 지분 매입 • 닛폰생명: 2014년 인도네시아 PT Asuransi Jiwa Sequis Life 20% 지분 출자 및 PT Sequis 29% 지분 출자; 1997년 태국 Bangkok Life 9% 지분 출자 • 메이지야스다생명: 2010년 인도네시아 PT AVRIST Assurance 23% 지분 출자; 2013년 태국 Thai Life 15% 지분 출자 • 스미토모생명: 2005년 인도네시아 PT BNI Life 40% 지분 출자; 2013년 베트남 Baoviet Holdings 18% 지분 출자
시장 특징	최근 동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말레이시아: 이슬람보험인 ‘타카풀’ 시장과 ‘비타카풀’ 시장이 존재하는데 신계약 보험료 기준 60%, 40%임; 이슬람보험과 일반보험의 주요 판매채널은 각각 방카슈랑스와 보험설계사 채널임 • 베트남: 변액보험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보험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이 주요 판매채널임 • 인도네시아: 말레이시아와 유사하여 이슬람보험인 ‘타카풀’ 시장과 ‘비타카풀’ 시장이 존재하는데 보험료/납부금 기준 90%, 10%임; 방카슈랑스와 보험설계사 채널은 주요 판매채널임 • 태국: 상해보험과 종신보험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양로보험과 변액보험 판매가 증가 중임; 보험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은 주요 판매채널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닛폰생명: 2006년 태국 Bangkok Life 지분 9%에서 25% 출자 확대 • 메이지야스다생명: 2012년 인도네시아 PT AVRIST Assurance 지분 23%에서 29% 출자 확대 • 스미토모생명: 2019년 베트남 Baoviet Holdings 지분 18%에서 22% 출자 확대

자료: Swiss Re(2023. 10), "World Insurance", フコク生命(2023. 11), "ASEAN諸国の生命保険事情"; ニッセイ基礎研究所(2022. 5), "2020年のインドネシア生命保険市場の概況";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함